

COLUMN

황당한 AI 상황과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波動)



IIII 장규호
(사)한국오리협회 고문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린다. 신년호에 칼럼을 쓰고 정확히 4개월 만에 다시 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잠시 쉬면서 필자 이외의 각계각층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였다.

그 동안 칼럼에서는 외부에서 우리 오리업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어 좋았는데, 업계 내부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오리업계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아니, 오리업계 외부의 목소리를 잘 간파하여야만 소비자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캐치하여 제품개발에 응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외부인사의 참여는 바람직한 것이며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오리요리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였다. 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www.dr-duck.co.kr>)에 접속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의 관심사가 오리요리이다. 이는 오리요리가 그만큼 대중화 되어 가고 있

다는 증거이다.

물론 AI 발생한 초기에는 AI 이야기가 50% 였지만, 그것도 한달여 동안 발생 되다 보니 지금은 뉴스로서의 가치를 많이 잃어 15% 정도에 그치니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 아닐 수 없다.

전북 김제로부터 시작되어 정읍, 나주, 영암, 남원, 순창을 비롯해서, 경기 평택까지 종횡무진 발생했던 AI는 이제 곧 수명을 다하여 소멸되겠지만 그 동안 업계가 입은 피해는 어찌 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매년 6월만 되면 찾아오는 비브리오 패혈증처럼, 업계관계자는 물론 전 관계자 모두 가일층 분발하여 항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AI는 그동안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시기적으로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시작한 것이며 일부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발생주기가 끝나간다는 보도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 있는 틈을 타고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번의 경우는 철새의 접근이 어려운 무창계사에서 발생된 점이나, 오리는 산란을 저하 외에 폐사는 없다고 했던 기존 상식을 깨고 대량 폐사한 것이라든지, 확실한 전파경로없이 호남에서 충청도를 건너뛰고 경기도로 직행했던 것이 영 오리무중속이다. 우리나라



라도 온난화되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동남아 국가의 AI 발생 양상과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

인간의 방역활동에 맞추어 AI도 진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무리가 아닌 것이 지금, 현존하는 약제에 대항하여 수시로 변화하여 내성을 키워온 슈퍼 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은가?

약제로서 질병을 잡는 것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가축사육농가들도 손쉬운 방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가축이 가지고 있는 자가면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름철에 생선회를 먹고도 탈이 난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그런 사람들은 체내에 면역력이 극히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듯 사람도 면역력을 키워야 하겠지만 가축도 면역력이 뛰어난 상태로 건강한 가축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농업은 어쩔 수 없어 농사나 한다는 식이 아닌 첨단기술로 무장된 미래의 산업이 되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게 되려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이런 조짐은 벌써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 중 겉모습은 농부인데 실상은 학자 뺨치는 이론을 지닌 사람을 많이 본다. 오히려

그들은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화섭 광주전남지회장이 그 중 한 사람이다. 지난 3월말 쯤 오리사육에 적합한 축사라는 말을 듣고 전남 영암으로 방문을 했다.

아주 높게 지은 이중 비닐하우스였었는데, 외관상으로는 일반 비닐하우스와 다를 것이 별로 없어 보였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천장 구조는 차광망 ● 비닐 ● 보온 덮개 ● 비닐의 순으로 되어 있었고 옆으로는 원치커텐이 있었는데, 모두 자동온도 센서에 의해 개폐된다는 것이라며 시범을 보여 주셨다. 왕겨도 마리당 78원 가량 소요되고 난방비도 일조시간에는 햇빛을 이용하니 적게 들 뿐 아니라 축사 내 환경 또한 훌륭하였다. 건축비용은 평당 17만원 정도였다 한다.

단, 굳이 지적을 하자면 파이프를 굵은 자재를 써서 겨울철 폭설에도 끄떡없는 축사였으면 하는 점이다. 요즘 오리표준 축사설계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필자가 알아본 결과 양계사와 다름이 별로 없는 구조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득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협회 담당자로부터 “농협직원들과 현장을 방문해 보겠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가슴이 답답해져 옴을 느꼈다.

최근 이명박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한미 FTA의 최고 걸림돌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한다. 그동안에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었지만 방미를 앞두고 선물보따리를 안겨 주려는 다급함이 눈에 보이는 협상이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볼 한우, 양돈, 전 축산농민에게 대책으로 나온 이야기는 단 하나도 신선한 것이 없고 전부 해 온재탕 발언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도 질 좋고 값싼 쇠고기를 사먹을 권리가 있다는 이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이번에 대책으로 나온 것은 대개가 육질고급화를 위한 보상대책이었으니 말이다.

그 말썽 많던 광우병의 위험은 농림식품부나 위정자들한테는 안중에도 없다. 동물성사료가 오늘 안 먹인다고 해서 내일 당장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 었다. 국내 축산농가들이 버텨 왔던 이유가 값은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한다고 자부 해 왔던 것인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 자부심이 크게 손상받은 것이다.

지난 4월 21일 한나라당과 농수산식품부 와의 당정 협의가 발표되었다. 제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축산업 발전대책”이었다. 10쪽에 달하는 문서에 겨우 1쪽 부분이 AI대책이라고 나왔는데 필자는 이것을 보면서 울화가 벌컥 치밀었다. 내용인즉, AI 연 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국 9개 수의대학과 협력, 종오리와 육용오리농장에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었다.

닭의 경우 AI 예찰활동은 그냥 넘겨도 되는 것인지 농 식품부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이번에도 처음 발생한 농장은 닭 농장이라는데 이 문서를 보면 AI의 원흉이 오리 때문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번 AI 파동으로 오리고기 소비는 50%에서 매물작

업에 참가했던 장병이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뉴스보 도가 된 후 70~80%까지 급감하였고 닭은 겨우 20% 정도 줄었다 한다.

특히, MBC의 뉴스보도에서는 오리사진을 크게 클로 즈업 하고 뒤에 조그맣게 닭 사진을 넣는 등 누구보다 공정성을 가져야 할 방송사가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 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서 생산자 및 소비자단 체, 업체, 정부와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을 닭고기 먹 는 날로 지정을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번 AI로 인해 가장 피해받은 업계가 바로 오 리업계인데 각 부처에서는 한 목소리로 닭고기 소비 만 살리자니 이것이야말로 조직적으로 “오리업계죽 이기”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 분한 것이다.

각종지원대책에는 오리분야는 빠진 것이 많고 줄 수 있는 혜택엔 오리가 제외 되니, 협회창설 이후 오리업 계 자력으로 이만큼 키워 왔는데 아무리 봐도 정부가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 하는 것 같다.

